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맛이요 축복이라 믿습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45)]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란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날로서 ...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마가복음 14: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마가와 마태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막 14:12; 마 26:17,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눅 22:1,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인 유월절 저녁부터(출 12:6) 무교병을 먹는 바 흔히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을 상호 교호적(교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18절)(호크마).

(a) 이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막 14:12)하는 말씀이 흥미로웁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란 유대인이 조상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해방절로서(1-14절)[“유대인들은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1월 곧 니산(아빍)월(태양력 4월) 10일에 어린 양을 식구 수대로 취하여 14일까지 양을 보관하였다가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 밤에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재앙을 유대인들만은 피할 수 있었고 마침내 출애굽시 장정(長征)에 오르게 되었다.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에 있었던 이러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호크마) “유월절 양”이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i) 즉, 겸손하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대하 35:1; 눅 22:7, 현대인의 성경)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1:29)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빌 2:8).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란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날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재앙)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 “그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막 14:12,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날을 성전에서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이기에 유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그 식사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어린 양, 무교병, 포도주, 쓴나물, 등불 등)이 여간 손이 가는 일이 아니었으며 또한 식사 장소에는 누룩이 모두 제거되어야 했기에(출애굽기12:15) 미리 청소도 해야만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준비 작업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호크마).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의 질문(마가복음 12:18-23)에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24-27절)을 들은 군중들은 감탄하였고(마태복음 22:33, 현대인의 성경) 율법학자(서기관) 몇 사람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누가복음 20:39-40, 현대인의 성경).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마태복음 22:34, 현대인의 성경). 그들 중에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율법사)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 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가복음 12:28-31; 마태복음 22:35-4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예수님의 답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 한 율법학자(서기관)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막 12:28, 현대인의 성경[“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마 22:36, 현대인의 성경))]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마가복음)이란 말과 “가장 큰 계명”(마태복음)이란 말은 동일한 의미로서 유대인들은 계명들을 크고 작은, 곧 중요하거나 사소한 법들로 구별했던 것은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의 정신에서 그리하였습니다(호크마).

(a)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613가지의 개별적인 율법(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이요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도 더 무거운 것과 가벼운 법령을 구분하여 생각하였고 전체의 율법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견지에서 이 서기관은 이 모든 율법 주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호크마).

(2) 예수님의 답변 말씀(막 12:29-31)은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체 율법을 요약해 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란 유일하신 주 곧 우리 하나님을 마

음과 묵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29-30절)과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31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호크마).

(a)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 밖에 없는 주이시다”(29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단 한 분 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30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b) 이 신명기 6장 4-5절 말씀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의 예배에 사용한 신앙 고백문인 “쉐마”[“들으라”(4절)]의 한 부분으로 매일 두 번씩 소리 높여 암송함으로 유대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호크마). 특히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첫번째 계명부터 네번째 계명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i)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막 12:30; 신 6:5)에서 “마음”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한 말이고 “묵숨”은 육체적 생명을 뜻하며, 이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며, “뜻”은 지적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하여”는 '전부 안에서, 전체로써'라는 말입니다. 전 인격을 기울여,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Tasker),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호크마).

-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목적,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요일 4:10).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예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하여도 고전 13장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 13:43)(호크마).

(c)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 15:1-9). 더욱이 그들은 원수는 미워했으며,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했고,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5:43-47). 그러나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사람의 유전을 배제하고 두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일서 4장 20,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i) 우리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보이는 우리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2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 속으로 온전한 사랑(미움 등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길 기원했고 지금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눅 22:51)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마가복음 14:47,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여기서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요 18:10).

(a)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눅 22:51),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마 26:52-54, 현대인의 성경),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요 18:11, 현대인의 성경).

(i) “이것까지 참으라”(눅 22:51)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King James Version 성경에는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도 받으리라”(Suffer ye thus far)라고 번역하며 Revised Standard Version는 “이만큼 해두라”(No more of this)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너희의 항거는 이정도만 하지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과 함께 “내가 잡히더라도 너희는 항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은 그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데 “이것까지”는 말씀은 “헤오스 투 투”로서 “여기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참으라”는 뜻의 “에아오”는 “버려두라”, “가게 하라”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호크마).

(ii)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마 26:52,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단호히 거부하시는 말씀입니다(호크마).

- (iii)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52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잡혀 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말씀을 연합해서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칼을 쓰는 사람”이라 기보다 오히려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 (iv)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마 26:53,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개역한글 번역본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 둘”이라는 숫자는 제자들의 수와 일치하고 열 두 지파의 수와도 일치하는 매우 의미 깊은 숫자로서 성경 문학적으로 '완전수'에 해당하며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을 뜻하는데 예수님 시대를 전후하여 팔레스틴에는 상당수의 로마군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당시의 일개 정규 군단은 보병 6100명, 말 726필 규모였다고 합니다(Robertson). 따라서 “열 두 영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호출하기만 한다면 그 힘은 불과 몇 백명에 불과한 체포자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신 것은 자기 자신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지금'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에 열 두 영도 넘는 천사를 보내셔서 원수들을 쳐부술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하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 말씀”(54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가리킨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인류 대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잡혀 주신 것입니다(호크마).
- (v)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요 18:11, 현대인의 성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막 14:36, 현대인의 성경). 이 두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예수님이 겪어야 할 수난)을 마시겠다고 이

미 결단하신 바 그 수난의 길이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할 자신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줍니다[(마 16:21-23, 현대인의 성경)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호크마).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13:17, 현대인의 성경).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길 부탁한 말(마가복음 10:35, 현대인의 성경)[“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37절, 현대인의 성경)]을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41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42-45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 (1) 왜 예수님의 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던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가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길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나 하고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와서도 가장 위대하고 싶어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열 두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을 텐데 그는 돈을 사랑하여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을뿐만 아니라(요한복음12:6,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도 있었기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한복음13:27)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9-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호크마의 말입니다: “그들도 (나머지 열 제자들) 야고보 형제와 꼭 같은 공명심이 있었고 그러므로 시기에 차서 분히 여길 것이다. 두사람이 예수의 좌우편 같은 가장 좋은 지위를 독점하게 되면 저들은 그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므로 두사람에 대해 노여워한 길이다. 교회는 언제나 이와같은 불순한 욕망 때문에 분규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불순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보기에 “가장 좋은 지위”인 ‘장로’(남자들) 또는 ‘권사’(여자들)를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규와 분쟁과 분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막 10:44,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요한삼서 1장 9-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오드레베”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이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 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데메드리오”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12절, 현대인의 성경)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3)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막 10:43,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a) “...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눅 9:48, 현대인의 성경), (b) “...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마 18:4, 현대인의 성경), (c) “...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5:19, 현대인의 성경), (d)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23:1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0:45,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되 자기를 팔 사람인 가롯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신 후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요 13:5, 11, 14-15,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입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4)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도 세도(권세)를 부”리듯이(막 10:4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직분을 섬김의 직분으로 여기기보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직분으로 오해하여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있습니다(참고: 시 73:6-10,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막 10:43,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 문제에 관하여 ...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썸에 대하여 다시 예수님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마태복음 19:9, 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마가복음 10:11-12,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마태복음 19:10-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이혼문제에 관해 제자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보충설명(호크마) 중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마 19:9,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음행”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는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영어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들 간의 성적인 관계에서의 부정’(marital unfaithfulness)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호크마에 의하면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분별하고 방종하며 집요하게 회개할 줄 모르는 문란한 성생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 한 번의 잘못된 부정 행위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호크마). 만일 이 의미가 맞다면 우리는 배우자의 “단 한 번의 잘못된 부정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행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막 10:9,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어느 여자들은 음행죄를 범한 자신들의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와 자기들에게 돌아오길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느 여자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음행죄(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불륜관계를 맺는 죄)로

인하여 이혼을 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 (2) 만일 아내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마 19:9,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호 3: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 약 170그램과 보리 18말을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2-3절, 현대인의 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하는 “음녀”(1절)요 “간음한” 자기 아내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가서” “여전히”(1절,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였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마 19:9,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간음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참고: 호 3:1; 눅 15:11-32,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요 13:1)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3)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막 10:11-12, 현대인의 성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지금도 이 말씀대로 자기 본처와 이혼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자들은 어떠할까요?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하고 진정 믿고 있고 있는 것일까요? 호크마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창조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 이므로 가령 이혼증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부관계는 불변이며 따라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중요한 셈이되므로 본처에게 간음죄가 되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호크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막 10:6-9, 현대인의 성경)하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승인되지 않는다”(호크마) 이혼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합리화시켜서 너무나 설불리 이혼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4)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마 19:10, 현대인의 성경)하고 예수님께 한 말을 묵상할 때 어쩌면 그들은 남편이 그의 아내가 음행한 일도 없는데 그녀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9절, 현대인의 성경)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할 때 자기들이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다면, 그들은 아내를 처음부터 갖지 않겠다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헨리). 메튜 헨리의 말입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이혼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듯하다. 그들은 이혼이 결혼 생활에서 얻는 안락함을 보전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진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던져 버리겠다는 식이다”(헨리).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목사들과 장로들까지도 “이혼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나요? 자신들의 “안락함을 보전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익숙해진 이 시대가 아닌가요?

(5) 메튜 헨리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 하시고는 그들을 축복하셨다. 즉 이와 같이 완전히 한 몸으로 결합된 자들이 복 되도다 선언하신 것이다. 다음의 사실에 유의하라.

(a) 첫째, 부패한 본성은 제약을 참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속박을 산산조각 내기를 좋아하며,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한 자유를 누리기를 기뻐한다.

(b) 둘째,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 안에 섞여 있는 십자가와 같이 고난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심술궂은 일이다. 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하여 우리가 세상을 뛰쳐나가야 한다는 것과 같다. 또는 어떤 유익한 직업이나 지위도 그 안에 우리가 예속되어야 할 의무를 지워 준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여 내뱉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고 그것이 주는 낙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 것처럼 양자를 서로 병행시키고 그것을 선용해야만 한다(전 7:14). 만일 결혼이라는 멍에를 기뻐 대는 내 벗어버리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멍에를 메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멍에를 메어야 할 때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그 멍에에 자신을 맞추려는 결심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혼은 가장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헨리).

(6)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마 19:11-12,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독신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에게 성욕을 절제하는 은사를 받아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하여 독신으로 머물러 산다면(고전 7:1) 자기들의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32-34절) 염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헨리).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문 밖에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마가복음 13:28-33,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때”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

“그때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마가복음 14:10-1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저는 “그 때”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왜 하필이면 가롯 유다는 “그 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 그 타이밍이란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 약 300그램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을 때(요 12: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며 마리아를 호되게 꾸짖은(막 14:4-5, 현대인의 성경) 제자들에게 “...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6-9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후 “그 때”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i) 흥미로운 대조는, 마리아는 가롯 유다의 말대로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요 12:4-5,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반면에(막 14:8, 현대인의 성경)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우 주었다(마 26:14-15, 현대인의 성경)는 것입니다.

- 여기서 300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5천만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인터넷). 반

면에 은화 30개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서(인터넷) 오늘날 금액으로 하면 1,200-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인터넷).

-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던(요 12:6, 현대인의 성경) 가롯 유다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약 300그램(3절, 현대인의 성경)의 가격인 300 데나리온(5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화 30개라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마 26:15-16, 현대인의 성경).

■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ii)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막 14:9,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 자”(마 10:4; 마가복음3:19)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한복음13:2)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여 별의별 안 좋은 생각들을 넣는지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생각의 영역에서의 싸움”이란 제목 아래 이러한 나눴의 글을 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생각의 영역에서 무익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 또한 저는 “생각 영역에서의 영적 싸움”이란 제목 아래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있습니다(렘 6:1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있습니다(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19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10절). 우리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10절). 오히려 우리는 거짓 목사(선지자)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말 듣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14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마치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악을 발하고 있습니다(7절). 탐욕의 생각들과 거짓된 생각들(13절)과 같은 악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있습니다(15절). 그 결과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21절).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19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8절). 우리는 하나님의 경책을 들어야 합니다(10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거짓을 다 버려야 합니다(13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15절). 그리고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16절).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16절).

- 또한 저는 “가장 교활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게하는 의문들과 말들”이란 제목 아래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었습니다: “가장 교활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게하는 의문들과 말들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창 3:1-5,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해야 합니다(시편 1: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게하는 의문들이나 말들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에도 질서가 있어야”한다는 제목 아래 이러한 짧은 글도 썼었습니다: “지난 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나는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무질서하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었던 면이 생각났다.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쓸데없이 괜한 생각들을 많이 한 것이다. 결국 나는 내 생각들을 무질서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생각들로 하여금 내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질서있게 생각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만일 내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더라면 그 말씀들이 내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므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 결과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충만, 성령충만함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 무질서하게 생각의 날개를 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한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 생각하지 않도록 힘써야겠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잠언 29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2) 저는 “그 때”를 생각할 때 몇 가지 말씀 묵상한 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a) 제목: “그 때 그 닭의 울음 소리를 잊을 수 있었을까?” “그 때 그 닭의 울음 소리를 잊을 수 있었을까? 그 때 베드로는 닭의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었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했던 자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어떻게 그 때 그 닭의 울음 소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마 26:33-34, 56, 75, 현대인의 성경).

(b) 제목: “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갈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충분히 낙망할 수 있습니다(욥 23:2-3, 8-9). 그 때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이러한 재앙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10절 상반절).”

(c) 제목: “그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에 관한 일

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개에게 갈아 입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에 4: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크게 근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큰 근심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의 근거는 시편 77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In the day of my trouble I sought the Lord; In the night my hand was stretched out without weariness; My soul refused to be comforted”(NASB)].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d) 제목: “그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법정에 넘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식구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가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참고: 마 10:17-22, 현대인의 성경).”

(e) 제목: “그 때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신랑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아내로 삼으시사 우리에게 신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참고: 호 2:19-2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맛ियो 축복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하였습니다(마가복음 11:20-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1)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란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베드로는 “다음 날 아침”(20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a) 제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제가 이미 묵상하고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0-2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란 바로 누가복음 22장 61-62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현대인의 성경).

(i)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었는데 저는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2)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맛ियो 축복이라 믿습니다.

(a)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베드로처럼 전에 들은 주

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일)를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성을 짓게하시곤 하십니다.

(i)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62절 말씀이 생각나서 그 두 말씀의 유사점을 생각해 되었을 때 그 두 말씀의 연결성이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가 이렇게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모습을 엿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마가복음 11:21)하신 반면에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였 때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으로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저주와 베드로의 저주를 연관짓게 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과 연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제 말씀 묵상의 글을 읽으면서 무슨 성경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의 연결성을 짓게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아빠/엄마였다고 기억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마가복음 14:3, 현대인의 성경)인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요한복음 12:3)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마가복음 14:3, 현대인의 성경), 곧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약 300그램(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마가복음 14:3; 마태복음 26: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마가복음 14:4-5, 현대인의 성경).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였습니다(요한복음 12:4, 현대인의 성경).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마가복음 14:6-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막 14:6-9, 현대인의 성경).

(a)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7절, 현대인의 성경) 마리아에게 (요한복음12:3)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라고 말한 분개하는 제자들(마 26:8-9, 현대인의 성경)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 (i) 호크마에 의하면 “아시고”(마 26:10)란 헬라어 단어는 과거형 분사로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그 정확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관적 인식이야말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16:8)하고 말했습니다(호크마).

(2)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a) 그 좋은 예가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 전구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문제를 내어 놓고 변명하며 호소하고자(4, 7절) 하나님을 찾아(3절) 그가 동서남북을 다 가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리도 간절히 찾은 하나님을 만나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진리가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며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 (i) (1) 지금이나 앞으로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전혀) 모르겠지만 내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희망을 줍니다. (2)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고난)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고 믿으니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주님이 고난의 용광로로 나는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그 분개하였던 제자들에게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막 15:6; 마 26:10,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일”이란 마리아가 “내 장례” 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해 둔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a) 여기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란 그저 선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쁘게 받으실만하여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막 14:7) 선행입니다(호크마).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i)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받쳐야 합니다. 그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이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사명감에 불타올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길 기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된 삶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4)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막 14:7-8, 현대인의 성경)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

(a)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i) 실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Los Angeles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노숙자들을 돕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 형 선교사가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저희 부부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와 동참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b)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육신으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함에 있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4:7-8, 현대인의 성경). 호크마 주석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례에 의하면 장례 절차 가운데 도유하는 의식이 있었다(대하 16:14). 그런데 막 16:1에 의하면 첫 부활절 아침에 세 여인이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으나 예수께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받음이 예수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기름부음이었고, 예수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여인이 자기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 자신의 '장사를 위해' 자기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호크마).

(i) 마리아는 나름대로의 영적 안목으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장례 예식으로서의 도유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미리 예수님께 찾아와 관례에 따라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Wycliffe, 호크마).

-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2)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5)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막 14:9,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사랑의 행위가 복음 선포와 함께 증거 되어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호크마).

(a) 예수님의 죽음을 장식한 마리아의 행위는 복음과 함께 없어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그녀의 행동은 사랑, 믿음, 용기, 그리고 자기 희생 등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자질들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됩니다. 실로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이 베푼 사랑의 행위가 이처럼 구속사의 한 모퉁이가 될 만큼 인정되고 기억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호크마).

(i) 우리도 그녀의 사랑, 믿음, 용기, 그리고 자기 희생 등을 본받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으로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아빠/엄마였다고 기억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제가 본받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모하고 경험하고 싶은 기도의 능력

이튿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논쟁(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마가복음 9:14-15; 누가복음 9:37, 현대인의 성경). 그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누가복음 9:3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병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몸에 상처를 입히고 또한 온 몸이 뻘뻘해져 버리고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으나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습니다’(마가복음 9:17-18; 마태복음 17:15-16; 누가복음 9:38-39,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9:19; 마태복음 17:17, 현대인의 성경).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병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치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마가복음 9:20-2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이튿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논쟁(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막 9:1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호크마의 해설이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빗발치는 비

난과 아유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같은 무기력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일단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과 더불어 연쟁을 하는것은 그것이 적극적 측면에서든 소극적 측면에서든 간에 헛된 일일뿐이다(딤후 3:9).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을 따름이다(고전 4:20)”(호크마).

(2) 군중에 한 사람이(누가복음9:3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병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막 9:17; 마 17:14-15; 눅 9:38, 현대인의 성경),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막 9:22,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눅 9:40,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밖에 없는 병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마태복음17:15, 현대인의 성경)라고 간구했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마가복음9:22,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한 사실을 묵상할 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아곱과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 생각났습니다(창 44:30). 병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었기에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하고 간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고침(치유)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

(a) 예수님이 상함받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사 53:10).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길 원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b)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받쳐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10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는 것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c)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11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 것을 만족

히 여기셨습니다(12절).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만족히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셨고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 (i) 복음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 (3)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하고 말씀하신 것(막 9:19; 마 17:17,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지금도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 탄식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참고: 호크마).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현대인의 성경) “...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 (4) 병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개역개정)]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개역개정)].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개역개정)] 하였다(막 9:22-2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3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반영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 (a) 오늘 약 5시 넘도록 사랑하는 친구와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였었는데 그 친구의 형과 형수님 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길 저는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 (b)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나?”하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서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1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c) 병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하고 말했는데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 “...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하고 말한 것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길 간구할 때 사랑하는 식구나 형제, 자매의 질병을 치유해 주길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3절과 후렴 가사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5)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하고 호통을 치시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막 9:25-27,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우리가 보이게 여러모로 절망 속에서 “죽은 사람같이”된 사람을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고 “달리다굴!”(뜻: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으켜 주시되 절망한 영혼을 소성케 하여주시고 부흥케 하시사 그들이 여러모로 벌떡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6)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막 9:28-2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금년 새해 2025년을 맞이하여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세 가지 능력 중에 두 번째인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모하는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눅 22:42,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 뜻대로 마시고”[“내 원대로 마시옵고”(개역개정)]를 먼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즉,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귀신”과 같은 “제 뜻”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쫓아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제가 경험하고 싶은 기도의 능력은 잠언 3장 5-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즉, 제가 경험하고 싶은 기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저로 하여금 제 지식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믿음으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랑은 ...

주님이 보시기에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은 부한 사람이 넉넉한 가운데서 돈을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드린 것입니다(참고: 마가복음 12:41-4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헌신은 별 볼일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전부를 믿음으로 주님께 받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큰 사랑은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전부를 표현하는 작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둘을 보내셨다(마가복음 11:1)는 말씀을 묵상할 때 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루살렘에 가까운”(막 11:1, 현대인의 성경)이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10:32, 현대인의 성경)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33-3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11:1, 현대인의 성경) 가신 목적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지시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침 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크마에 의하면 “예루살렘 남쪽 1마일 앞에는 벳바게 마을이 있었고 약 2마일 밖 감람 산 동편에는 많은 감람나무로 유명한 약 2마일 정도 넓이의 베다니가 있었”으며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유대에 계실 때 대체로 예수님의 숙소로 제공되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뿐만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호크마). “베다니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던 마을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반영해서 슬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베다니로 불렸습니다”(인터넷). 흥미로운 점은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종려나무 집’이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과 “벳바게”라는 히브리어는 ‘벳’(집)이란 단어와 ‘파게’(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결국 ‘무화과의 집’이란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지역이 바로 벳바게라고 합니다(인터넷).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던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 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막 11:1, 현대인의 성경)는 감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종려나무가 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셨다(마가복음 11:1)는 말씀을 생각할 때 마가복음 9장 7-13, 3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 두 제자

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개역개정)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보내시는 주님으로서 열 두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현대인의 성경)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몰몬교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두 명씩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길가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지만 집집마다 다닐 때는 두 명씩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9-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유익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한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 (a)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교회란 공동체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 (b)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11절, 현대인의 성경)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 (c)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합심하면 견고히 서서 능히 모든 역경을 이겨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 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서로 도와주며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보호해주며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 나아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종들인 목사님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을 때(마가복음 11:2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12:1-12)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내용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여행으로 가 있다가 소출 때가 되자 소출에서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해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갓은 모욕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마가복음 12:1-9; 마태복음 21:33-41; 누가복음 20:9-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 (1)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여행으로 가 있다가 소출 때가 되자 소출에서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해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갓은 모욕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막 12:1-5; 마 21:33-36; 눅 20:9-1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회개시킴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호크마)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것과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 (a)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또는 꾸준히 보내셨

다는 말씀입니다:

- (i) 예레미야 7장 25-26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 (ii) 예레미야 25장 4-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
 - (iii) 예레미야 26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iv) 예레미야 29장 19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v) 예레미야 35장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vi) 예레미야 44장 4-5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 (b)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는 꾸준히 그의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그들로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위해서였습니다.
- (i)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범했습니다.

(c)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님을 심히 모독하였고(느헤미야9:26) 박해하였습니다(마 5:12).

(i)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렘 18:18).

- 뿐만 아니라 고관들(대신들)은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감옥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37:15).

-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대신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 굵어 죽게까지 하려 했습니다(렘 38:4, 6, 9).

- 고관들(대신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와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26:11).

(ii) 사도행전 7장 51-52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사도행전6:8)이 지혜와 성령으로(10절)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의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은(15절, 현대인의 성경) 마음에 찔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고(7:54) 결국에 가서는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58-60절, 현대인의 성경).

(2)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종들인 목사님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위해서입니다.

(a)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종들을 통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참고: 딤후 4:3, 현대인의 성경).

(i)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바른 교훈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참 목사님들을 마음 속으로라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목사님들을 미워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능욕하며 또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참된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말씀을 한 마디로 빼 놓지 않고 그래도 선포합니다(참고: 렘 26:2,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참고: 겔 2:5, 7; 3:11).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가거라”(마가복음 14:12-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하고 물은 제자들 중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가거라”(막 14:13,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할 때 ...

(a)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로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누가복음 10장 1-3절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라.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유효한 증인이 되게 하시 위해서입니다(민 35:30; 신 19:15; 전 4:9; 마 18:16; 딤후 5:19)(호크마).

(i) 보내실 때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께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또는 보내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 주님이 세우시든 또는 보내시는 그리스도 중심된 일꾼들을 주님께 보내심(파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입장

에서는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님이 보시기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연약한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호크마). 수행할 때 우리는 선한 목자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사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b)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가거라”(막 14:13,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 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고백했을 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며, 둘째로, 그들이 겸손했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요, 셋째로,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권위적인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i)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 저는 그 예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 루디아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녀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13-15절).

-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하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을 우리 모두가 갖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말씀하셨다(마가복음 11:15-17, 현대인의 성경).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뚝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마태복음 21: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막 11:15,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가 있는 건물과 안뜰,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성전의 안뜰은 유대인에게만(여인의 뜰 포함), 그리고 바깥뜰, 즉 이방인의 뜰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에는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도 있었고, 이방인의 뜻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인터넷).

- (a)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1) 유대인 남자들의 뜰과 (2)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리고 (3)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들 중 가장 주변부에 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이곳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싼 권리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인터넷). 칼빈(J. Calvin)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 돈 중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궤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기 때문 따라서 이 소매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들의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권장 아래서 점차 커져갔는데, 특히 큰 명절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호크마).

(b)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막 11:15, 현대인의 성경)은 대제사장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호크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을 돌려 얹으셨다(15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과 레위기 2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속죄제물의 값으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었고 돈 바꾸는 자들은 로마와 헬라의 표준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 화폐로 그들은 반 세겔(shekel)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17:24-27)(호크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려 얹으셨다”(막 11:15, 현대인의 성경)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문둥병자가 치료를 확증 받기 위해서(14:22) 또는 여인이 해산한 후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속죄제물로(레 12:6-8) 이용되었고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드리는 제물이었으며(5:7) 주로 여인들에 의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호크마). 결국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당시 제사장들이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하고 그곳에서 사는 짐승들만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인터넷).

(2)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막 11:1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와 관계된 기구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성전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금해 버리신 것입니다”(인터넷). 그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17절, 현대인의 성경).

(a)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 중 하나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고(6절) 또한 주님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7절). 그러고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6, 7절). 한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았 습니다(6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7절). 다시 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11절)을 드리기 보다 눈먼 것, 병든 것(8, 13절),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으로 희생 제사 고기를 드렸습니다(13절). 곧, 그들 은 하나님의 상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12절). 또한 이스라 엘 백성들은 서로 궤사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2:10-11)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습니다(11절).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11절) 자기 짝이요 맹약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했습니다(14절). 한 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17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습니다(3:13). 그들의 완악한 말 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14절).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 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말하였습니다(13절). 그러면서 하나님 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 나는 ...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이사 야1:10-14).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말라기1:10).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이상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못 하도록 우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0절). 주 님의 사랑을 모르고(2절), 주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고(6절), 주님을 더럽 게 하는(7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전 문을 닫 을 자가 있을까요? (10절)

- (3)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집(“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막 11:17,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눈에는 나의 성 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다. 이것은 나 여호와 의 말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성전”(4절)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에게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 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10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은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들을

성기는 것(6절),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9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10절)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기에 안전하다고 말한 후(4절, 현대인의 성경) 성전 밖에 나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서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3, 5절)고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2절).

(a) 과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예배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교회 밖에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있지 않나요? (9절). 하나님 보다 돈을 더 믿고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참고: 마 6:24) 지금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수고하기보다(고전 15:10)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렘 7:10) 이러한 보상심리적인 주일 행함(쇼?)으로 우리는 위안과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다시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제물(헌금?)을 더 이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찬양?)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지 않을까요? (사 1:11-15) 과연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 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마가복음 16:9)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7장 9-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막 16:9, 현대인의 성경)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 거기서 나를 보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28:9-10).

(i)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마가는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막 16: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1절)라고 언급을 했다가 “안식 후 첫날”[“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9절, 현대인의 성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9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먼저 나타나셨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말했다가 9절에 와서는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했을까요?

-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 또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 어쩌면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여인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요?
 - 구원과 제자도: 누가는 마리아의 인생 전환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눅 8:2). 그녀의 완전한 해방은 메시아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보여 주며, 그분께 대한 그녀의 변함없는 헌신의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후, 그녀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던”(3절) 여행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섬김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을 결합한 평신도 제자의 초기 모범 가운데 하나로 그녀를 세웁니다(인터넷).
 -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음: 열 두 제자 대부분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마 27:56)라고 기록하며,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곁에 선 그녀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고”(요 19:25). 그녀의 용기는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해도 참된 제자도는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또한 그녀의 현존은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입증하는 목격자 증언이 되어,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필수적인 근거가 됩니다(인터넷).
 - 장사 지냄의 증인: 마태와 마가는 모두 마리아가 “예수께서 안치되신 곳을 보았다”(막 15:47; 마 27:61 참조)고 강조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장사와 부활 이야기 사이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곧, 장례를 지켜본 바로 그 여인들이 나중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세심한 관찰은 장소를 착각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며, 부활 기록의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인터넷).

- 부활의 첫 증인: 네 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에 있었음을 전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막 16:9)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기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알렸다”(요20:18)고 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첫 나타나심과 사명을, 한때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말기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며, 여성의 증언을 경시하던 1세기 사회 관습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한 소식은 빈 무덤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전통적으로 “사도들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으나, 성경은 그녀를 열 두 제자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인터넷).

(ii)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 거기서 나를 보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9-10). 여기서 예수님의 인사말 “평안하냐”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인 헬라어 “카이레테”의 번역으로 “기뻐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말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 16:20)고 하셨던 예언을 생각나게 해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상태에 있었듯이(8절) 예수님의 십자가 및 부활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에게 있어서도 근심과 기쁨의 감정을 교차케 해주는 역설적 사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제는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호크마).

- 이 해석이 좀 흥미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받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는 “평안하냐”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 날은” 가사입니다: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후렴)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 예수님께서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마 28:1)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 거기서 나를 보리라”하고 말씀하셨는데(10절) 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내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셨는데 어쩌면 그 이유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자,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갈릴리로의 초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추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참고: 인터넷).
- 여기로 새로운 시작이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부활의 확신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참고: 인터넷).

- 복음성가 “갈릴리 마음 그 숲 속에서”(“가서 제자 삼으라”) 가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후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어진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마가복음 15:22-23)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로마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하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막 15:22-23), 마태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마 27:34)하고 기록하였습니다.

(a) 호크마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하고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하고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차이는 아람어의 '몰약'(morah)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담'(marrah)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쓴맛이나 독성에 있어서도 유사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호크마).

(i) 물론 이 사건에서 마태복음이 중언하는 “쓸개 탄 포도주”란 말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쓸개”란 진짜 '쓸개'나 '담즙'을 뜻하기 보다 쓴맛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말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Carson, Lenski). 그리고 “포도주”는 매우 센 독주로서 취기가 속히 들고 마취 성분이 강한 술을 가리킬 것입니다(호크마).

-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쓰디쓴 포도주를 사형당하는 죄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1) 십자가 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참아낼 힘을 주려했기 때문인 동시에 (2) 술로 인해 거의 마취되다시피 한 죄수들은 사형 집행관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호크마).

(b)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쓰디쓴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는데 여기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는 말은 계속적인 거부 의사를 내포한 말로서, 예수님은 그 당시 몇 번에 걸쳐 마실 것을 강요당했으나 끝까지 마시지 않을 것을 고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호크마).

(i) 실로 예수님께서는 마취제의 도움으로 고통을 덜어보려 하기보다는 모든 감각을 지닌 채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다가오는 뼈저린 고통에 맞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것이 순전히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십자가가 제공하는 아주 세미한 고뇌조차도 친히 감수하시며 인성으로서 당하셔야 할 모든 고통을 끝까지 체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호크마). 진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당신의 “고난의 잔”을(요 18:11, 현대인의 성경)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고자 하셨습니다(호크마).

- 한편으로는 이같은 행동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29)는 당신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호크마).

(2)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갔지만(마 27:31-32)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자발적으로) 십자가가 제공하는 아주 세미한 고뇌조차도 친히 감수하시며 인성으로서 당하셔야 할 모든 고통을 끝까지 체험하고자 하셨습니다.

(a) 예수님께서는 마취 성분이 강한 쓰디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주일에 여인들의 값비싼 헌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마가복음 16:1)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사복음서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합니다:

(a) “안식일이 지나매”(막 16:1)라는 말씀을 마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마 28:1)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눅 24:1)라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요 20:1)라고 기록하였습니다.

(i)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묵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다시 살아나신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인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날은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주님의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행 20:7) “그 주간의 첫날(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것이 곧 오늘날 기독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기원입니다(참고: 호크마).

- 이날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일로 대체되어 지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 창조 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으니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주 일을 성수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호크마).

■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이상 안식일이 시간적 구속력을 강요하는 율법적 멍에가 아니라는 사상이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골 2:16). 그들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폐기하기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안식 후 첫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인들이 태양의 날(Sun day)로 인정했던 주간의 첫날이 A.D.321년 콘스탄틴(Constantine, 274-337) 대제에 의해 공휴일화 되면서 이 날이 '의로운 태양'(말 4:2)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굳어진 듯합니다(호크마).

(b) “...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막 16:1-2)라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 28:1)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눅 24:1)라고 기록하였고, 요한은 “...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 20:1)라고 기록하였습니다.

(i)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묵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눅 24:3)]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1절, 참고: 막 16:1) 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막 16:1; 마 28:1; 요 20:1)와 “다른 마리아”(마 28:1)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막 16:1)와 “살로메”(1절)인데 누가는 “이 여자들”(눅 24:1)이라고만 기록한 반면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언급하였습니다(요20:1).

- 누가의 경우 “이 여자들”(눅 24:1)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23:49, 55, 현대인의 성경)[참고: “그(예수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27절)]로서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모셔 두었는가를 이미 봐 두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후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쉰 여자들이었습니다(55-56절, 현대인의 성경).

- 요한의 경우 “막달라 마리아”(요20:1)만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요한은 첫 방문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핵심 인물이었기에 그녀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 같습니다(참고: 호크마).

-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은 한때 일곱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격의 인물인데(막 16:9; 눅 8:2),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끝까지 남아 이를 지켜보았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요 19:25)(호크마).

■ 대부분의 열 두 제자와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는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마 27:56)라고 기록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있는 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요 19:25). 그녀의 용기는 진정한 제자도는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할 때에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또한 그녀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목격자 증언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도적 설교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인터넷).

(ii)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막 16:1)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눅 24:1)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막 16:1, 현대인의 성경).

- 유대인의 장례는 신속하게 매장하고,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고, 부패를 지연시키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 마른 향료로 둘러싼 것이었습니다(요 11:39-44 참조). 몰약과 침향(19:39)이 흔했지만, "향료"에는 값비싼 발삼이나 나드 향료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작한 일을(38-40절) 완수하려는 여인들의 의도는 관습적인 경건함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반영합니다(인터넷).

- 그녀들의 의도는 제자들의 헌신을 강조하고 빈 무덤의 배경을 마련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미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요 11:2)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장례

를 앞둔 준비로 해석하셨습니다(12:7). 따라서 이 표현은 사랑의 마지막 역할과 죽음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선포를 모두 함축합니다(인터넷).

- 누가복음 7장 38절(“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과 요한복음 12장 3절(“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름 부음은 신앙의 개인적, 희생적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인의 눈물과 입맞춤, 그리고 끊임 없는 기름 부음을 회개와 감사의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은 베다니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예언적 인정으로 묘사합니다. 이 사건들은 신자들에게 예배에는 값비싼 헌신이 필요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사랑으로 부어진 가장 귀한 물질을 받으실 자격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인터넷).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6:17-18)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오래 전에 어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뱀을 집어올리면서 뭐라뭐라 말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 17-18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a) 그 때 저의 반응은 ‘저 목사님은 그 성경 말씀(막 16:17-18)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독사를 손에 집어 들고 교인들에게 표적 아닌 표적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 마가복음 16장 17-18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16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인터넷):

(a) “귀신을 쫓아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 새 방언: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며, 이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 뱀을 집어올림: 이 구절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헤럴드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d)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음: 이 역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 핵심: 마가복음 16:17-18절은 믿음의 증거로서 따르는 표적들을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헤럴드에 따르면 믿음의 결과로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의 표시인 침묵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마가복음 15:3-5)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가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마 27:12)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가 “장로들”을 첨가한 것은 백성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일에 분명히 관여하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호크마).

(a) 또한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65-66절에서는 산헤드린이 사형 판결을 내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신성모독)했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유대법에 의해서는 성립되지만 로마법에 의해서는 유죄 판결의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였다고만 언급되어 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소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고소 내용이 예상했던대로 정치적인 죄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눅23:2). 그 정치적인 죄목이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 그리스도”라 자칭하여 왕권에 도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물은 것입니다(막15:2; 마27:11)(호크마).

(2) 빌라도 총독은 또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 마디 변명도 없는가?"]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막 15:4-5). 이렇게 아무 대답(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현대인의 성경)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a) 예수님께서서는 앞서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심문에서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첫 번째 침묵):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마 26:62-63, 현대인의 성경).

(b)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 아무(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두 번째 침묵):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27:12-14, 현대인의 성경).

(c) 예수님의 세 번째 침묵은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았을 때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눅 23:9, 현대인의 성경).

(i) 그리도 무수히 많은 고소 앞에서도 왜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단 한 마디의 고소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셨다”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침묵은 무언 중에 자신의 무죄성을 강조하신 동시에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20:28)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호크마).

- 공생애 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께 있어서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도 인류에 대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호크마).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을 때(마가복음 11:2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대답 대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12:1-12)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내용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여행으로 가 있다가 소출 때가 되자 소출에서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해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갓은 모욕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마가복음 12:1-9; 마태복음 21:33-41; 누가복음 20:9-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 (1)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막 12:6-8; 마 21:37-39; 눅 20:13-15,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

- (a) 먼저 저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눅 20:13, 현대인의 성경)[“어찌할까”(개역개정)]하고 말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호크마에 의하면 이 주인의 말은 그가 탄식하는 것이었고 그 탄식은 소작세를 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안타까움도 아니고, 주인이 보낸 종들의 수난 때문만도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강박해진 농부들의 마음이 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입니다(호크마). 저는 이 주인의 탄식을 생각할 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하시고 주님의 종인 저 같은 목사의 강박해진 마

음이 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까 탄식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마음이 강박해진 원인이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지 못하는 것이기에(엡 3:18, 현대인의 성경)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기에 주님께서는 ‘제임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하고 탄식하신다고 생각합니다[참고: (호 6:4,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비록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지만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결 같은 사랑이요[(시 143:12, 현대인의 성경) “주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 나는 주의 종입니다”], 진실한 사랑이요[(25:10, 새 번역)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사랑임[(5:7, 개역개정)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을 믿습니다.

(b) 저는 그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하였다(눅 20:13,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롬 5:10) 우리 죄인들(3:23; 5:12)의 “속량, 곧 죄 사함”(골 1:14)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마 3:17, 현대인의 성경)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요 3: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저주의 나무(신 21:23; 갈 3:13)인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줄 알고 계셨습니다[(행 2:23,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c)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막 12:7-8; 마 21:38-39; 눅 20:14-15,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농부들은 서로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하든 수호하기 위해 골똘히 대책을 숙의한 결과 아예 상속자인 그들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림으로써 포도원의 소유권을 영구히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호크마). 이것은 그 농부들이 주인과의 맺은 계약 조건으로 그 농부들이 일정한 세액을 그들의 주인에게 납부하기를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어기고(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들의 주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욕심을 낸 것입니다(호크마). 계약을 인간이 먼저 파기했으며, 청지기적

신분을 망각한 인간의 탐욕이 온갖 범죄의 원인임을 말해줍니다(호크마).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욕심꾸러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약 1:15,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인 목사님을 대적하여 공격함에 있어서 ...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마가복음 12:12-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17절과 누가복음 20장 19-2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막 12:13,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흥미로운 점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견해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문제만은 일찍부터 협력하여 일을 꾸몄었다는 것입니다[(3:6,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a)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누가복음 23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 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원수처럼 지냈던 헤롯[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아들인 이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음(인터넷)]과 빌라도[로마 황제로부터 파송 받은 총독(인터넷)]가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편 2편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현대인의 성경)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원수로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그들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지만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눅 23:11,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세 번이나 말

해 놓고서도(14, 15, 22절) 결국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므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23-25절, 현대인의 성경).

- (i)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인 목사님을 대적하여 공격함에 있어서 서로 관계가 좋지도 않은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심지어 권사님들까지 함께 연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새 번역)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진리에 속한 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마가복음 15:2)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요 18:33-38):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던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a)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막 15:2; 요 18:33)하고 질문한
것은 유대인들의 3가지 고소 내용[(1) 예수님이 유대인을 미혹하는 행동을 한다, (2) 가이
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킨다, (3)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한다(눅 23:2)] 중 세 번째 고소 내용인 정치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으로서
그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 부터 해방시킬 왕이냐는 것이었습니
다(호크마).

(b)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현대인의 생각) “그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요 18:34)하고 물으셨는데 아마도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참고: 호크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라도는 단지 유대인 고소자들의 말을 듣고 정치적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물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참고: 35절, 호크마).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 고소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한다(눅23:2)고 고소함으로 예수님은 정치적 선동자라고 이해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의미에서(종교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물은 것입니다.

(c) 빌라도의 답변인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현대인의 성경)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요 18:35)하는 질문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개인적 호기심에 의한 심문이 아니라 오직 그가 알고 싶어했던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호크마).

(i)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인 중 누군가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하며 세력을 규합하여 반로마적 투쟁을 주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없었고 또한 체포되어 끌려온 예수의 모습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며 그를 고발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예수에 대해 알고자 했다”(호크마).

(ii)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란 표현 속에는 한가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이 이방인 총독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음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 책임의 소재와 결부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의해 떠밀려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간 세력은 대제사장들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호크마).

(d) 빌라도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현대인의 성경)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35절)하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

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현대인의 성경)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36절)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i)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간 한 일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의 나라의 정체를 설명하셨는데(호크마) 그 설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날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니 않는 것임을 설명하는데 있어 단 하나의 단서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싸움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권력이란 예외 없이 싸움에 의해 얻어지고 싸움에 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며(계 11:15) 힘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호크마).

(e)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하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 18:37)하고 대답하셨는데 이 답변의 말씀을 한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i)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막 15:2)하는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ii)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요 18:37)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존재도 이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자

신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Divinity of Jesus)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참된 인성(Humanity of Jesus)을 증거합니다(참고: 호크마).

(iii)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37).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1:1-3), 진리이십니다(14:6). 그 자신이 진리인 예수는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14:6).

-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은 다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사실(3:27; 6:44, 45, 65)과 본질은 잘 조화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예정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본 구절은 영적 진리에 무지한 빌라도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만일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겠지만 그는 결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나”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18:38).

(2)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으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8:32)도 믿으며 그 자유를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a) 지금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며 (16:13)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17:17).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로하여금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고후 13:8, 현대인의 성경).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하여금 진리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심히 기쁘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찬송 받을 이”[the Blessed (One)]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현대인의 성경)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마가복음 14:61-62)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하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태복음26:63)하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누가복음22:66-67)하고 기록하였습니다.

- (a)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서만 기록되어있는 “찬송 받을 이”[the Blessed (One)]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대 칭호였습니다(호크마). 이 칭호의 원어 헬라어 의미입니다: ‘eulogētós(“축복받으신”)는 오직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며, 이는 신성(Godhead)이 우리의 모든 헌신(our commitment)을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찬양받으실 만하며(praiseworthy), 모든 "선한 인정"(good acknowledgment)을 받으실 만합니다!”(인터넷)

- (i) (누가복음1:68-70,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주셨고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일으키셨으니 오래 전에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니라.”
- (로마서1:25,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

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 (로마서9:4-5)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ii)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시 47:2, 9),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요(4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8절).

-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모세의 노래(1) (출 15:1-18)].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모세의 노래(2) (신 32:1-43)].
-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단련시키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해야 합니다[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계 14:2-4)].
-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발람의 노래(1) (민 23:7-10)].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땅에 티끌처럼 많이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성(신실성)과 불변성을 노래해야 합니다[발람의 노래(2) (18-24절)].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복함과 우리의 흥왕함을 노래해야 합니다[발람의 노래(3) (24:1-9)]. 우리는 “한 별”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광명한 새벽별”(계 22:1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합니다[발람의 노래(4) (민 24:10-19)].

-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죄악 된 세상에서 승리의 빛을 힘 있게 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힘 있게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삿 5:1-31)].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영적 전쟁을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다윗의 노래 (삼하 1:17-27)].
- 우리는 세상에 어느 왕들이나 사람들보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된 질투심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여인들의 노래 (삼상 18:1-9)].
-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고 간구하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하박국의 노래 (1) (합 3:2)].
-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하박국의 노래 (16-19절)].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천사들의 노래 (눅 2:8-20)].
-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제임스의 노래 (시 63:3)].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증언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찬양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여호와를 송축하라”(시편 134편)].

-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여호와를 찬송하라!"(135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150:6).

천국 시민이요 미국 시민인 "동전 목사님"의 책임?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마가복음 12:12-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22절과 누가복음 20장 19-2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마태복음 22:19,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누가복음 20:24, 현대인의 성경)]하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마가복음 12:15-17,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 (1) 어제 한국에 있는 어느 부부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 어린 아들이 저를 “동전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저는 그 글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 아이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저랑 만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같이 놀았었는데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동전 목사님”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 ㅎㅎ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이와 그의 남동생에게 줄 미국 동전 선물 2개씩을 제 막둥이 예은이의 방에 가서 돈 봉지에서 허락없이 꺼내서 제 가방에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ㅎㅎ 제 계획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그 부부와 그 부부의 두 아들과 만날 때 “동전 목사님”이 그들에게 미국 동전을 선물로 주려구요. ㅎㅎ

(2)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여기서 “세금으로 바치는 돈”인 “데나리온”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로마 화폐로서 그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에는 재임 중인 황제의 이름과 칭호가 찍혀 있어서 황제의 재산임을 나타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새로 세워지거나 왕이 새로 즉위하면 새 왕의 화상(畫像)을 넣은 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유통되는 곳에서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 주화에는 당시 황제 가이사 디베리우스(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화의 글귀는 황제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여신으로서 묘사된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 주화에 그려진 황제의 얼굴은 종교적 권위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E.Stauffer).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폐를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꺼려했었습니다(호크마).

(i)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은화로 바쳐야 했기에 사람들은 매년 일인당 한 데나리온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던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호크마).

(b) 저는 여기서 “세금”을 생각할 때 오래 전에 고 김동길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여기 Los Angeles 오셔서 강연을 했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 보러 나라에 세금을 받쳐야 할 것은 권면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직하게 나라에 세금을 받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도 나라에 세금을 양심있게 바치는 것을 권면하는 신문 광고를 여러 번 본 기억이 납니다.

(i)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쳐야 할 예물(헌금)들은 바친다고 하면서 나라에 바칠 세금은 바치고 있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3)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막 12:16, 현대인의 성경)[“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눅 20:24, 현대인의 성경)]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막 12:16,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는데(25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지난 주에 어느 형제를 통해 그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치관”에 관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만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문화적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도, 더욱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한 채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제도권인 가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직장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학문, 예술, 재물, 명예를 대하는 모든 자세와 태도 역시 이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균형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유병수 목사님).

(a) 이 부분의 글이 생각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막 12:25,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과 유병수 목사님의 글을 연관해서 묵상하며 반영하며 제 자신에게 적용할 때 저는 유병수 목사님이 말한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먼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천국 계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 39,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저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프로 주실 것이다”(6:33, 현대인의 성경)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조금이나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또한 미국 시민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

다. 제가 그 책임 중에 중요시하는 것은 매년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과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i)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막 12:25, 현대인의 성경)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율무나 정치적인 율무(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었을 텐데 예수님의 답변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율무에 빠지게 할 수 없게 되었고, 헤롯 당원 중 몇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정치적 율무에 빠지게 할 수 없었기에 요즘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터넷)]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17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 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 18장 2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일찍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던 유대인이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운 후(25-26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 버리기 위해선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야 합니다(벧후 3:18). 우리는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야 합니다(빌 3:8).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볼로처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려야 합니다(행 18:28).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마가복음 16:19-20)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누가복음 24장 51-5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두 부분으로 나뉘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i) 첫째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막 16:19)와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눅 24:51, 현대인의 성경).

-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행 1:3, 현대인의 성경)]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 여기서 “이 말씀”이란 사도행전 1장 4-8절을 가리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그런데 저나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루살렘에 모여있었던 예수님의 열 한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었던 “다른 사람들”(33절, 현대인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교회는 주님의 끊임없는 축복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인터넷).
-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님(눅 24:51,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막 16:19). 예수님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스테반이 본 환상에 의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증명되었습니다(호크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행 7:55-56).
-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상적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호크마).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상에서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1) 예수님의 기도 사역[“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과 복음 전파 사역[“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결국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ii) 둘째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막16:20)와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눅 24:52-53, 현대인의 성경).

•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막 16:20, 현대인의 성경), (2) 큰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눅 24:52-53).

- 이 두 가지 제자들이 행한 일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들이(눅 24:17; 요 20:19)(호크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눅 24:52-53),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사(행 1:8)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나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막 16:20). 한 마디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 및 경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케 하실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4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손”(43절)이나 “발”(45절)이나 “눈”(47절)이 “죄 짓게 하거든” 손과 발은 “잘라 버리라”(43, 45절)고 말씀하셨고 눈은 “빼어 버려라”(47절)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43절), 즉 “하늘 나라”(45절) 또는 “하나님의 나라”(47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죄 짓게 하는 손이나 발을 잘라 버리지 않고 눈을 빼어 버리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43, 48절)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43, 45, 47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수님께서 신체 중 제일 민감한 감각 기관인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 짓게 하거든 “잘라 버리라” 또는 “빼어 버려라”고 하신 말씀이 좀 “잔혹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것은 “육체에 대한 무가치 또는 문자적 측면에서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회개의 철저성과 전인격의 경건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호크마).

(a) 그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서 또한 그 만큼 주님은 우리도 죄를 미워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버리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벧전 1:16, 현대인의 성경).

(b)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체 기관 중 “눈”을 생각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의 책 ‘영적 광명’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기 31장 1절).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눈이 어떤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십시오. 똑바로 앞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 여러분은 눈과 언약을 맺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거룩과 하늘만 주목하고 나가십시오”(존스).

(i) 눈의 욕심(요일 2:16),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잠 27:20). 사람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벧후 2:14).

(c) 2020년 4월 17일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았습니다”란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 글입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녀가 그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삼하 11:2).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요한일서2:16).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잠 27:20). 우리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욥 31:1).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했고 분명히 다윗은 그녀가 "우리의 아내 밋세바"인 줄 알았습니다. 즉, 다윗은 분명히 밋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더불어 동침했습니다(삼하 11:3-4). 다윗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요일 2:16). 그는 10계명 중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열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출 20:14, 17). 우리는 이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2) 마가복음 9장 43-48절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전개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의 범죄 → 찢어버림/뺏어버림 → 영원한 생명(하늘 나라/하나님의 나라)(호크마).

(a) 여기서 범죄 요인인 손이나 발이나 눈을 제거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임(호크마).

(i) 만일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지옥인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43절, 현대인의 성경),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48절, 현대인의 성경).

- “지옥은 다름 아닌 모든 죄가 만족되는 곳이다”(오스왈드 챔버스, “죄의 철학”).
-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제일 높은 자와 같이 되어 흥겨운 음악으로 인생을 즐기던 악한 통치자들의 영화도 끝날 것이며 그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구렁이에 빠질 것입니다(참고: 사 14:11, 14-15, 현대인의 성경).

-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달고 있는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기에 우리는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우리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에 되고 우리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며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우리의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우리는 ‘왜 내가 훈계를 싫어하며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내 선생님의 말씀 듣지 않았으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참고: 잠 5:3-14, 현대인의 성경).

탐심이야 말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마가복음 14:3, 현대인의 성경)인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요한복음 12:3)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마가복음 14:3, 현대인의 성경), 곧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약 300그램(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마가복음 14:3; 마태복음 26: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마가복음 14:4-5, 현대인의 성경).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였습니다(요한복음 12:4, 현대인의 성경).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케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마가복음 14:6-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막 14:4-5, 현대인의 성경).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였습니다(요 12:4, 현대인의 성경).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케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a)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분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막 14:4,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러한 불만의 주동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분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들은 두로의 이방여인에게도 분을 내었고(15:23),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왔을 때도 그러했으며

(19:13),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제안에 대하여도 분을 내었다(20:24).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나타난 현상들과 배치될 때 일어나는 성급하고 악향 감정이었다. 실로 타락한 인간 본성(本性)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경륜을 받아들이기에는 장애와 반발 요인이 너무 많다”(호크마).

(i) 요나 4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요나 4장 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박 덩굴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요나 선지자가 죽고 싶을 정도로 성낸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었다가(1절, 현대인의 성경) 나중에 와서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므로 더위를 피하게 하였던 박 덩굴(6절, 현대인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시사 그 박 덩굴을 씹게 하시므로 그것이 곧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7, 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쓰러질 지경이었기에 그는 죽고 싶어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한 것입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 결국 요나의 죽고 싶을 정도의 성냄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졌기 때문이요(1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므로 대단히 기분이 좋게했던 박 덩굴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6-7절, 현대인의 성경).

(ii) 왜 우리는 성내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성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노인 것일까요? 혹시 우리 자신이 보기에만 합당한 분노가 아닐까요?

-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보시고(창 4:4-5)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6-7절, 현대인의 성경).

- 만일 우리가 “바른 기도”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는 말씀(김창만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옳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바른 사랑’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일 3:18) 오히려 ‘잘못된 빼돌어진 사랑’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므로(4:20) 죄가 있어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고 있으면서(벧전 2:20)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성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요?

(b)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막 14: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낭비”(개역개정에는 “허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플레이아”는 일말의 생산적인 결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낭비, 즉 값진 것을 무용(無用)하게 모두 소모해 버린 것을 뜻합니다(호크마). “결국 이 말은 제자들의 관심이 오직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물질에 집착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실로 그들의 물질 중심의 평가는 신앙 중심, 사랑 중심의 ‘한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무참히도 짓밟아버린 것이 되었다. 정녕 신앙적 무지는 자기 만용과 이웃과의 관계 파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곤 한다”(호크마).

(i) 저는 여기서 “낭비”(허비)를 생각할 때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29세의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동료 선교사 네 명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당시 미국 신문에는 이 사건이 보도될 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인터넷).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은 정말 낭비였을까요? 시편 116편 1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다.”

(ii) “제자들의 관심이 오직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물질에 집착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호크마)는 말을 생각할 때 물질 중심된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이나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인 가롯 유다와 같은 자들로서 입술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교회 재정을 구제

하는데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도 돈을 탐내고 있습니다(눅 16:14; 요 12:4-6, 현대인의 성경; 딤후 6:10).

-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참고: 호 5:4-5, 현대인의 성경; 눅 16:14).

-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맡기신 주님의 재산을 주님의 뜻대로 재산 관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네가 맡아 하던 청지기 직무 일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 돈을 좋아하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답시고 정직하지 못하게 불의한 재물을 불성실하게 모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눅 16:1-14, 현대인의 성경).

(c)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막 14:5,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호크마의 말을 여기에 인용하고 싶습니다: “삼백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300일 동안의 노동 품 값이라고 한다. 유다는, 가난한 자를 예수님보다 귀히 여긴다고 여기 말한 셈이다(Grosheide). 이것은 세상 생각으로만 타산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일어난 불평이다. 이 불평은,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 모르는 어둠이다.

- (i) 마리아와 유다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마리아는 희생자임. 그(녀)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아끼고 줄 모르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과 같이 행한 자이다. 곧, 마 22:37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에 최선을 다 할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리할 줄은 모른다. ... (2) 유다는 옳은 것을 비평하였음. 유다는 마리아의 봉사를 비평하였으니, 그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 모르는 그릇된 사상이다. 그 뿐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

을 귀한 줄 모르는 그릇된 태도이다. 예수님은 천하의 몇 만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하신 분이다. 이와 같이 귀한 예수님을 위하여 천하를 바친들 아까우라? 그러나 유다는 물질만 귀한 줄 알았으며, 빈민 구제를 구실로 삼아 트집을 잡았다”(호크마).

(d)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요 12:4, 현대인의 성경)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궤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6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가롯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위선자였다는 호크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 “그러므로 그것은 계획적인 악행이었다. 유다는 저렇게 탐심이 강하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파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하였다(눅 22:3-6). 평소에 그의 마음 속에 자라나던 죄악(탐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호크마).

-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골 3:5). 탐심은 탈취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참고: 삼상15:19, 현대인의 성경).
- 가장 교활한 사탄은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습니다(창 3:1, 6; 롬 7:8, 현대인의 성경).
- 탐심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불만족하게 여기게 만들어서(잠 5:18, 19) 결국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만듭니다(출 20:17; 신 5:21).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살전 4:6, 현대인의 성경).
- 탐심은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기회를 얻게 합니다(삼하 12: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실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수 6:18) 아간이란 한 사람이 탐심 속에서(7:21)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이스

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1절).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절).

- 한 시민의 소유를 원하는 탐심으로 가득찬 한 나라의 지도자(부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권모술수를 써서 그 시민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민의 소유를 강탈해 갑니다(왕상 21:1-16).
- 지금 우리 교인들은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성욕에 못 이겨 정신없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날뛰는 것 같이 돈의 욕심과 탐심에 못 이겨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날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참고: 렘 2:23-24, 현대인의 성경)
- 탐심과 거짓과 더러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을 거두어 가실 것이요, 우리 삶의 열매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참고: 렘 8:13, 현대인의 성경).
- 탐심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행 20:33-35).
-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눅 12:14-1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세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마가복음 12:18-27,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22:23-28; 누가복음 20:27-33)는 말씀 중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마가복음 12:26-27,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막 12:26, 현대인의 성경)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마 22:31)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막 12:18)을 성경(출 3:1-6)의 증거를 들어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셨다(마 22:31, 호크마)는 사실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5장(부활장), 특히 12-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현대인의 성경). 아마도 그 이유는 만일 제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22절 말씀의 증거를 들어 부활의 사실을 입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13-17절 말씀의 증거를 들어서도 부활의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마 22:31)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를 들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막 12:24, 현대인의 성경) 사두개파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부활에 대한 이해가 모세오경에 없는 것으로 단언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26절)을 하신 것입니다(참고: 출 3:6, 호크마).

(a)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하신 말씀하셨을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셨어야 문법적으로 옳은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호크마). 그 이유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몸은 오래 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참여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호크마).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막 12:27,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과 영혼의 존재의 관점에서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몸은 썩어 흙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기에(호크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살아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i)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막 12:27,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 있는 관계임을 역설합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 있다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구체적 삶이 변혁되지 못한 채로 살아 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중생한 사람이라면(누가복음20:36)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38절, 현대인의 성경)고 덧붙이는데 살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이야기이며 부활 역시 육체적 의미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이며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 영생,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요 11:25,26)(호크마).

-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 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마가복음 15:42-45)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7장 57-60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가복음 23장 50-54절 말씀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a)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막 15:43)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43절)이라고 기록하였고, 마태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도 “예수의 제자”(마 27:57)라고 기록하였으며, 누가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이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눅 23:50-51)라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요 19:38)라고 기록하였습니다.

(i) 첫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마 27:57)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서부쪽 30여 km쯤에 있는 아리마대 성[“일반적으로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범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이니만

큼, 올바른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자부심이 높았을 것이며, 자연히 이곳에서 자란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자랐을 것이다”(인터넷)]에 살았으면서도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이 있었다는 것[“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사후에라도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 예루살렘 근방에 자기 가족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함”]은 요셉은 재물이 넉넉했음이 분명합니다(호크마).

-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 남다른 주의를 기울였던 마태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마 27:57)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그(메시아/그리스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을 상시 했을 것입니다(호크마).

(ii) 둘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막 15:43)[“공회 의원”(눅 23:50)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하는데, 산헤드린은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헤드린의 구성원의 수는 71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70명 혹은 72명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을 선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신중한 일이었는데, 도덕적,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아버지여야만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있어야 했고, 절기나 필요할 때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착한 모든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법을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고, 사형선고도 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 공생애 당시 로마의 총독이 지배할 때는 그러한 사형집행이 로마의 집정관인 총독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존귀한’ 존재였습니다(인터넷).

- 이렇게 존귀한(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실(눅 22:66-71)과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

행을 성사시키게 했던 공회 의원들의 모든 음모와 실행에 찬성하지 않았습니
다[“그는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았다”(현대인의 성경)](23:51)(호크
마).

-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셉이 공회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죽
이기로 결정할 때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형 결
정에 반대한 공회 의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호크마).

(iii) 셋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눅 23:50). 누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는 산헤드린 공
회 의원으로서 정직하고 경건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되(참고: WBC 주석) 공회에서 예
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실(22:66-71)과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성사시키게 했
던 공회 의원들의 모든 음모와 실행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3:51).

-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성경 기록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이 선하고 의로운 아
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현대인
의 성경)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
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

(iv) 넷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마 27:57; 요 19:38). 사
도 요한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요 19:38,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
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마 27:58;
눅 23:52, 현대인의 성경)는 것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의원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와 함께 공개적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인터넷).

- 진정한 제자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값비싼 충성을 수반합니
다(인터넷).

(v) 다섯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막 15:43;
눅 23:51).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대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인터넷). 자세한 설명은 이렇습니다(인터넷):

-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 하나님의 때와 방법: 세상의 방식과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 인내와 훈련: 때로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내와 믿음이 훈련되고 성숙해집니다.
- 은혜와 깨달음: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 영적 성숙: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b)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막 15:43)하고 요구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요셉에게 시신을 내 주었습니다(44-45 절, 마 27:58; 요 19:38)(호크마). 여기서 요셉이 “당돌히”(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막 15:43)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 손실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결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참신앙의 용기를 보였던 것입니다(호크마).

(i)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마 27:59-60; 눅 23:53).

-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주검을 요셉이 직접 내려받고 유대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마포로 시체를 감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체 처리 방법이었습니다(요 11:44; 19:40). 세마포로 싸기 전 시체를 깨끗이 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행 9:37). 한편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대개 매장하지 않은 채 버려두어 개들과 새들의 밥이 되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법상으로는 죽을 죄를 지어 사형당한 죄인을 나무에 매단 후 당일에 반드시 장사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신 21:23)(호크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누가복음 20: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에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마가복음 12:10-12; 마태복음 21:42-46; 누가복음 20:17-1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마 21:43,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너희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로서 그들은 산헤드린[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으로서 그것의 주요 기능은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관해 재판하는 것이었음(인터넷)]을 대표하던 사람들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지 못했기에(살후 1:5)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며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임(인터넷)]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1:12-13)(인터넷).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허물과 죄

로 죽어있었고(엡 2:1)[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현대인의 성경)]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있었기에(롬 5:10)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거듭난(중생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고후 5:17)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요 1:12)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마 21:43,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i)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이 9가지 성령님의 열매를 하나로 요약한다면(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란 원어 헬라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임을 생각할 때) “사랑”(나머지 8개 열매들은 다 “사랑”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로서 그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 39)는 천국 계명 말씀에 순종하므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신 것처럼(요일 2:1, 6) 우리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3:11, 23).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에” 후렴을 보면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서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이라.”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16).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3:11, 23).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생활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성령님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드려야 합니다.

(b)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i)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막 8:35,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삶으로 복음전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새 번역)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그러면 잘 준비된 이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마가복음 14:12-1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그러면 잘 준비된 이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먼저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하여라(막 14:14, 현대인의 성경; 참고: 눅 22:11, 현대인의 성경)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자기 때가 가까웠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마 26:18, 현대인의 성경)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 마태는 마가와 달리 “자기 때가 가까웠으므로”(마 26:18,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추가로 기록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기록한 “자기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씀합니다. 즉,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적 죽음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때”라는 말씀은 ‘정해진 때’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때를 의미합니다[(엡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호크마).

(i)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갈 4: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자기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참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

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요 7:6-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17:1)].

(2)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막 14:15-16, 현대인의 성경; 참고: 눅 22:13,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고, 마태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마 26:19,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하고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되어 있음을 제자들이 발견하였다고 말하였고, 마태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하고 기록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대로 모든 일이 실현되었음을 증언함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아무런 방해 없이 다같이 들기 위하여 미리 용의 주도하게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호크마),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제자들의 책임을 강조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i) 만일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책임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Mark D. Futato 교수님의 "The Book of Psalms" 주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자의 담대한 태도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가복음 14:41-42)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2) 예수님의 세 번 기도는 (a)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성과 (b)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의 긴박감 및 (c) 예수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절대성과 적극성 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그 자체의 중요성이 은연중 강조되고 있습니다(호크마).
- (3)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란 말씀은 수난의 시간이 가까왔고 기도하거나 닥쳐올 시험에 대비하여 힘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이제는 잠을 자도 무방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호크마).
- (4) "때가 왔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잡히어 최악의 순간을 맞을 그 수난의 때가 이미 왔다는 말씀입니다(호크마).
- (5)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는 말씀에서 "죄인"은 배신과 고발의 첫 행위자인 가롯 유다만을 의미하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원, 백성의 지도자, 일반 백성, 그리고 로마 행정 당국자들 모두를 내포합니다(호크마).
- (6)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맞으시려 하셨다(요한복음 18:4)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의연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담대한 태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복의 한 단면이었습니다(호크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을 때(마가복음 11:2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대답 대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12:1-12)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내용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난 후 소출 때가 되자 소출에서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해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갇은 모옥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마가복음 12:1-9; 마태복음 21:33-41; 누가복음 20:9-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 (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을 때(막 11:2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왜 ‘포도원 농부의 비유’(12:1-12)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갇은 모옥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또는 목적)는 어쩌면 적의에 가득 찬 그들의 의도를 폭로하므로 그들에게 경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호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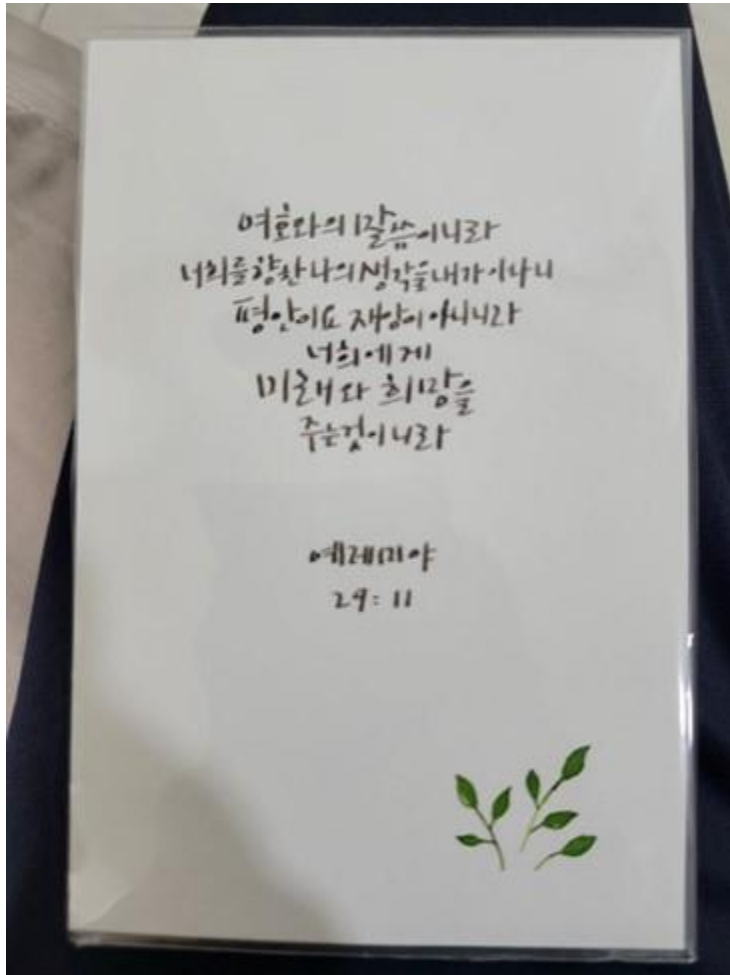
- (a) 어쩌면 주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의도를 들춰

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의도가 주님과 교회를 향하여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하다면 (또 속셈이 있어 참되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한 의도를 들춰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b)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반영해 볼 때 충분히 우리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의 복음)를 전할 뿐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불순함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약 1:14,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을 일으킵니다(잠 28:25,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욕심꾸러기 교인들은 만족할 줄 모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참고: 사 56:11,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다른 교인들을 착취하기까지 합니다(참고: 벰후 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눅 12:15, 현대인의 성경).

(c)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십니다(대상 28:9, 새 번역). 히브리서 4장 12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때에 만일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하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1) 저는 선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적힌 이 카드의 말씀들 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

(a) 제일 첫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말씀의 충족성'(the sufficiency of the Scripture)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오

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저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로 그 때 그 때 가정의 위기와 목회의 위기를 견뎌내게 하였고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위기 때 은혜 받은 말씀은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기전에 은혜 받은 시편 63편 3절 말씀과 셋째(지금은 둘째) 딸이 매우 힘들었을 때 은혜 받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의 위기 때 붙잡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제 영혼을 소성시켰으며 부흥케하였습니다.

(b) 둘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욥기 23장 10절 개역한글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저는 욥처럼 제가 가는 길을 모를뿐만 아니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c) 마지막 셋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지 재앙이 아니다'입니다("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평안"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제 장인 어르신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생각납니다. 특히 후렴 가사인 "내 영혼 평안해"(it is well with my soul)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분은 육신으로는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신적 평강(divine peace)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제 장인 어르신이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분은 삶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life)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아름다움은 재앙과 같은 질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미래가 전혀 안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하.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길 기원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의 질문(마가복음 12:18-23)에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24-27절)을 들은 군중들은 감탄하였고(마태복음 22:33, 현대인의 성경) 율법학자(서기관) 몇 사람은 “선생님, 웬 말씀입니다!”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누가복음 20:39-40, 현대인의 성경).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마태복음 22:34, 현대인의 성경). 그들 중에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율법사)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마가복음 12:28; 마태복음 22:35-3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만 묵상하고 내일 예수님의 답변 말씀(마가복음 12:29-31; 마태복음 22:37-40)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군중들이 감탄하였다(마 22:33,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몇몇 성경구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7:28, 현대인의 성경),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막 11:18, 현대인의 성경),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하였다”(눅 2:47,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4:22, 현대인의 성경).

(a) 저는 이 말씀들 중 특히 누가복음 2장 4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2살이셨던(4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예수님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한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만난 “선생들”(46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들”에 대해 호크마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어린 예수께서 당대 최고 석학들과 함께 율법을 이야기하며 토론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호크마). 그리고 그 당대 최고 석학들이 감탄했다는 말은 거의 기절할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우 놀랐다는 뜻을 생각할 때 어린 소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자체의 탁월성에 기이한 놀라움/감탄이었다는 것입니다(호크마).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불과 12세에 불과한 소년이 당대의 석학들과 당당하게 토론하는 장면은 그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48절).

- (b) 누가복음 4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의 회당(16절, 현대인의 성경) 안에 모였던 사람들(20절,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22절, 현대인의 성경)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마 13:5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자체가 지혜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감탄한 회당 안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1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2절)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에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3절)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 (2) 율법학자(서기관) 몇 사람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눅 20:39-40,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호크마의 주석이 흥미롭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강했으며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경쟁적 차원에 있었다. 이러한 신학적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옹무에 빠뜨리려 했던 일(27-40절) 외에는 이 두 그룹은 항상 마찰을 빚어왔다. 본 구절에서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자신들과 사상적 숙적(宿敵)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주장들을 여지없이 훼파해 주신데 대하여선 크게 기뻐하였다”(호크마).

- (a) 이 주석이 흥미로운 이유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강한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율법학자)들과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숙적 관계 속에서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막 12:13,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예수님의 답변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었는데(17절, 현대인의 성경) 이전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눅 20:26, 현대인의 성경)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마 22:34, 현대인의 성경). 결국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그들의 공통(공공?)의

적이었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들을 던져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말문을 막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바르게(옳게) 그리고 성실하게(렘 23:28) 말하고 전하므로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책잡으려하고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말문을 막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3) 바리새파 사람들(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마 22:3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금도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기독교인의 모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a)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의 단체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언젠가 이사야 1장 11-1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the calling of assemblies)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I cannot bear your evil assemblies)(13절)고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이고 “성회”인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대회/성회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11절), “... 기뻐하지 아니하노라”(11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12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13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14절).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너희의 무수한 예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만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예배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예물을 다기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너희의 집회와 모임을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엇인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i)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지지 않으면서 드러지는 무수한 예물이 하나

님께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예물)을 받쳐도 주님의 전을 떠나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거룩한 주일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런 모임은 우리에게도 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모임입니다.

-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고전 11:17하,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들 중에 “분쟁”(divisions)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8절). 그 분쟁은 그들 중에 “파당”(differences)으로 말미암았습니다(19절). 그리고 그 “파당”이란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가 “분열”(18절, 현대인의 성경)되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파당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만하면 다투고 싸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나요?

(4)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서기관)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마가복음 12:28; 마태복음 22:35-3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들이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던 말씀(마태복음 4:1-11)과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도 마귀의 종들인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예수님과 함께 못박힌 두 강도들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말씀입니다. 이들의 시험이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보러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말고 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27:39-44, 현대인의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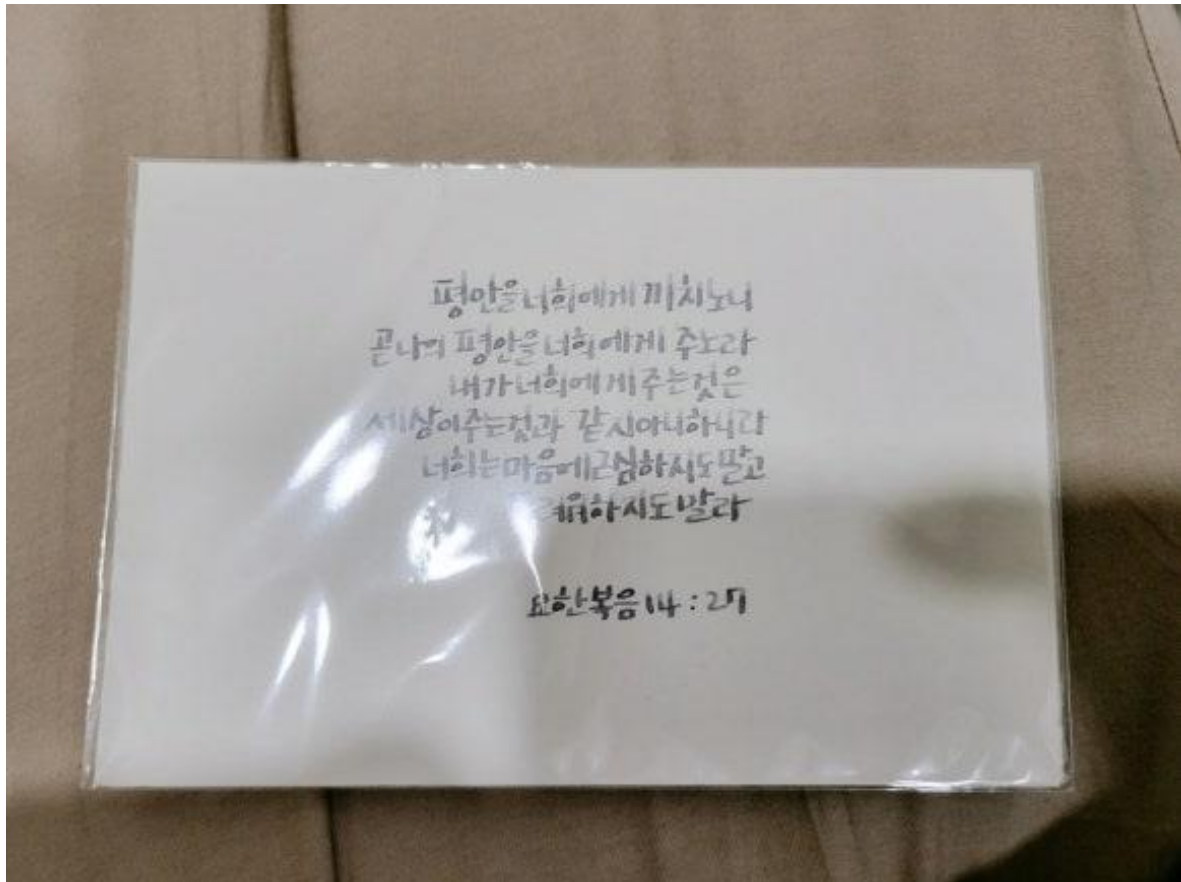
(a) 그러나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2:18,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

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수한 제물이나 많은 헌금이나 수많은 봉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참고: 마가복음 12:32-34, 현대인의 성경)(인천공항에서 리무진 타고 합정역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받은 이 성경 구절 선물을 선물한 자매 앞에서 읽으면서 처음으로 좀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장담하지 말고 함부로 “절대로”란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마가복음 14:27-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31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한 내용만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마 26:35, 현대인의 성경).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눅 22:33, 현대인의 성경).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요 13:37, 현대인의 성경).

(a) 동일한 말씀을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좀 약간씩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장담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든,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2) 이 베드로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때 한 4가지 생각과 교훈을 얻습니다:

(a) 첫째로, 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버릴지라도(막 14:27, 현대인의 성경) 자기는 예외이며 자기는 결코(“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호크마). 즉, 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큰 소리로 장담한 것입니다(마 26:33; 막 14:29)(호크마).

(i)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얻는 교훈은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겠다는 것과 함부로 “절대로”란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b) 둘째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든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눅 22:33, 현대인의 성경) 그 말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은 길을 가겠다고 호언한 것입니다(호크마).

(i)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얻는 교훈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요 13:1)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지만(마 28:20)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고[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임(호 6:4, 현대인의 성경)] 또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은 길을 갈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c) 셋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하고 큰 소리 쳤는데(요 13:37, 현대인의 성경)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참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15:13, 현대인의 성경)].

(i)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얻는 교훈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며(10:11) 우리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막 8:35, 새번역)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d) 마지막 넷째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는데(막 14:31, 현대인의 성경) 이 베드로의 강경한 장담은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호크마).

(i)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탄

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렸습니다(21-22절, 현대인의 성경). 이 사실을 묵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뵤대로의 의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큰소리 속에는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것이기에 자기도 함께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입술)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하고 큰 소리 쳤지만(요 13:37,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있지 않았었습니다(참고: 눅 22:33, 현대인의 성경).

－ 요한일서 3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 에바브로디도(빌 2:25)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30절).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현대인의 성경)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마가복음 15:1)하고 마가는 기록하였지만 마태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마태복음 27:1-2)하고 기록한 후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갚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둬야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발을 피발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발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6-10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마 27:1)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2절; 막 15:1) 여기서 “결박”이란 두 손을 뒤로 모으고 포승으로 묶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형과 같은 극형을 인도받는 자들을 인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호크마).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원들에게는 사형수였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막 14:64, 현대인의 성경).

(a)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의 판결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비록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나 사형 집행은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죄수는 로마 정부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어야 했습니다(호크마).

(i)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였던 총독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관할하

고 있었는데 유대사 요세푸스(Josephus) 등의 증언에 따르면 잔인하고 전제적이며, 자신의 수하에 있는 유대인 관리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매우 외골수적인 지배자였던 것 같습니다 (Jos.Antiq.XVIII,35,55-62; Wars II,169-177). 또한 그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된(고르반) 돈을 훔쳐 수도가 설비로 유용했으때, 이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을 때군대를 파견하여 많은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더럽힌 적도 있었습니다(눅 13: 1)(호크마).

(2)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예수님의 정죄함(개역개정)]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개역개정)] 한 후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라 자살하였습니다(마 27:3-5, 현대인의 성경).

(a) 여기서 “스스로 뉘우쳐”(3절)란 헬라어 “메타멜레데이스”는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메타노에인”(회개하다)보다는 상당히 약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청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 후회의 차원에서만 바꾸는 것입니다(호크마).

(i) 두 헬라어 동사인 “메타멜레데이스”와 “메타노에인”은 ‘회개하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성경적 뉘앙스 때문에 두 동사는 구별됩니다: (1) “메타멜로마이”는 과거의 결정에 대한 고통, 즉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마 27:3), (2) “메타노에오”는 의지, 즉 하나님께로의 의도적인 돌이킴에 초점을 맞춥니다(행3:19).

- 가롯 유다는 하나님께로의 의도적인 돌이킴(회개)이 아닌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회는 결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복음적 희망이 없는 후회는 절망으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인터넷).

- 우리는 그저 스스로 뉘우치는 후회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

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현대인의 성경)](행 26:20).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 줄만한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마 3:8, 현대인의 성경).

훌륭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보다...

훌륭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우는데 헌신합니다(참고: 막 13:1-2, 현대인의 성경).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참고: 5-6절, 현대인의 성경).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참고: 7-8절, 현대인의 성경).